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1. 11.(화) 09:00 <11.11.(화) 석간> 배포 2025. 11. 10.(월) 17:00

범부처 민관합동 경제공급망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처음 실시합니다

- 범부처 위기대응체계 강화 및 13개 소관부처 실무매뉴얼 정합성 제고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기관·민간 간 유기적 협력 지속

정부는 경제공급망 위기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범부처간 신속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25.11.11(화)부터 11.13(목)까지 3일간 경제공급망 위기대응 도상훈련(TTX*)을 실시한다.

* Table Top Exercise

< '25년 경제공급망 위기대응 도상훈련 개요 >

○ 일시 / 장소 : '25.11.11(화)~13(목) / 기재부 지하3층 종합상황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참석기관 : (주관부처) 기재부
(소관부처) 과기부, 행안부, 농림부, 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우주청, 방사청, 산림청, 질병청
(유관부처) 외교부, 국방부, 복지부, 공정위, 관세청, 조달청, 국정원
(재외공관) 미국, 중국, 캐나다, 독일, 벨기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칠레,
(실무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TRA, 한국수출입은행, 광해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가기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환경산업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민간기업) 이포컴, 에코앤드림, 포스코퓨처엠, HMM, 한화에어로스페이스, GC녹십자

이번 도상훈련은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훈련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공급망 위기 상황(상세훈련 내용 및 품목은 비공개)"을 가정하여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파악 및 부처별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실제 공급망 위기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범부처 훈련인 만큼 경제안보품목 소관 13개 부처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기관, 민간 기업도 참여토록 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번 훈련은 공급망 위기 포착부터 부처별 대응, 공동대응, 후속대책 수립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1일~2일차에는 소관부처 및 범부처 합동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3일차에는 도상훈련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합동 평가회의를 통해 훈련 과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손웅기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금번 도상훈련을 통해 범부처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현재 마련 중인 13개 소관 부처의 ‘핵심품목 공급망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에 금번 도상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위기상황에 맞도록 정합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기 발생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	책임자	과 장 손선영 (044-215-7880)
		담당자	사무관 정완준 (044-215-7882)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44-203-4910)
		담당자	사무관 김대건 (044-203-491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